

본당소식

◎ 성바오로 딸 수녀회에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을 보급합니다. 한국에서 오신 수녀님들께 감사드리며, 본당 교우 여러분은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5월 구역모임

워털루 2구역: 30일(토) 오후7시 이흔희자매택
월털루 4구역: 23일(토) 오후6시 김현태형제택
브랜포드 구역: 16일(토) 오후6시 장명길형제택

◎ 성모회 모임

5월 7일 (목) 오후 7시 / 장소 : 소성전

◎ 성시간 안내

5월 8일(금) 오후 8시 미사 중

◎ 바느의 성모기도회 모임

일시 : 5월 8일(금) 오후 8시 미사 후
장소 : 소성전

◎ 로고스회(성경모임)안내

수요일 - 매주/ 금요일 - 격주

지금 오셔도 환영합니다. 진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공부를 위한 날짜와 시간은 확정되었고 변경되지 않습니다.

▶ 5월 5일(수) / 5월 15일(금) 미사 후

◎ 5월은 캄브리지구역이 안내 담당입니다

1) 2인 1조로 항상 1시간 전에 나옵니다.

2) 미사 및 천교 준비

(친교실 식탁 준비, 게시판 준비, 본당 정리 정돈)

3) 주보 배포 및 새로 온 교우 파악

4) 미사 후 정리 정돈

(친교실 정돈, 본당과 외곽 정리 정돈)

◎ 주일학교 용품 Donation 감사합니다.

도움을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바랍니다.

- 문의: 노재현 아킬레오 ☎ 519-590-4493

◎ Garage세일 안내

오는 5월 9일(토) 오전 8시부터 St. Atony Daniel 성당과 함께 Garage 세일을 합니다.
문의 : 성모회

◎ 예비자 교리 공부 안내

6월부터 시작하는 성탄예비자반 모집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포스터가 준비되어있으니 많이 가져가셔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세요.

문의 : 박재영 바오로 ☎ 519 747 4981

▶ 오늘 미사 후 예비자 교리 있습니다.

◎ 주보 및 교우주소록 광고접수 안내

본당 발전기금 마련을 위해 주보 및 교우주소록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접수키로 결정하였기에 공고하며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광고가 마감되면 주보 사이즈가 크게 바뀔 예정입니다.

- 주보 광고: 6.5x 4Cm (가로x세로)

• 6 개월- \$ 60- 24회 게재

• 1 년- \$ 100- 48회 게재

- 교우주소록: (2 년)

• 1단광고(11.5X5.5Cm) - \$ 70 (3단중 1단)

• 전면광고(21.5X13.5Cm)- \$ 120

• 표지안쪽 광고(상기 동일규격- 1건)- \$ 150

▶ 광고 접수문의 및 관리자 : 사목회 총무

한택중 막시모 ☎ 519 883 8488 Ext 1

▶ 광고 신청범위 : 신자, 비신자, 비한인

▶ 참고 : 광고사안이 교회정신과 상이한 경우 접수를 사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보발행이 없는 주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H1N1)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해 신자들 간에 악수, 주님의 기도 때 손을 잡는 것, 접촉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정중한 인사로 대신하십시오. 성당에 들어올 때 손소독, 친교식사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으십시오.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 lucasmuse@korea.com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 519 894 3533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평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유아 세례
병자 성사
혼인 성사

1주일 전 신청
상시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고해성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009-20호

2009. 5. 3.

부활 제 4 주일(성소주일) 미사전례

해 설 노 재현 차주 해설 이 민

성 가
입 당 (55) 착하신 목자
봉 헌 (332) 봉헌
성 체 (172) 그리스도의 영혼
퇴 장 (244) 성모의 성월

화 답 송 ◎ 집 짓는 이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알렐루야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
치셨네. 당신 양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 하셨네. 알렐루야.

		독	서
5월 3일	정경래	정문진	
5월 10일	김동규	김은옥	
5월 17일	백옥현	박인선	

		봉	헌
5월 3일	고영호	고기숙	
5월 10일	정경래	정문진	
5월 17일	김동규	김은옥	

		복	사
5월 3일	류지현	이현재	
5월 10일	구한힘	노승범	
5월 17일	구하람	강수현	

		친	교
5월 3일	환희팀	5월 10일	영광팀
5월 17일	장미팀	5월 24일	백합팀

◆ 부르심 calling, vocation

하느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러 특별한 목적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느님 자신이 베푸는 은혜와 구원을 풍성히 받게 한다는 성서상의 가르침이다. 소명(召命)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구약의 카라(qara)는 ‘부르다’의 의미를 가지며 ‘초대하다’(1사무 16:3), ‘소환하다’(2사무 1:15), ‘이름을 부르다’(창세 11:9)라는 뜻으로도 쓰였다. 즉 하느님이 그의 백성을 선택하여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세(출애 3)와 예언자들(사도 6 ; 예레 1,4-10 ; 아모 7,14-15)을 불렀던 사실에서 부르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신약에서는 Klesis로 카라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신약 전체를 통하여 하느님이나 그리스도 성령이 사람을 부르시는 행위를 가리킨다.

부르심에 대한 교리는 바울로의 신학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바울로의 문헌에서 부르심은 그리스도교 안으로의 초대가 일차적이고, 이를 통한 하느님의 목적과 행동의 전개는 부르심의 예정, 부르심, 영광으로 이어진다. 즉 하느님은 인간구원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모든 사람을 참여시키기 위해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도 부르셨다(로마 9,24). 바울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현세적 생활에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부르심이 머무르는 곳은 교회다. 그러므로 각 개인은 교회의 공동체적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셋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생활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깨닫고, 자기가 해야 할 역할과 임무를 수

행해 나가야 한다. 넷째,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합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중세시대에는 성직제도, 수도원제도의 발달에 따라 성속(聖俗)의 구별이 생겨나고, 교회에서는 성직만을 부르심(vocatio)이라고 생각하였다. 대체로 스콜라신학에서는 성직자 우위와 일반직에 종사하는 자의 하위적 개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이 모두 하느님의 역사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선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서 이웃에 봉사하며 노동하는 직업은 모두 상하의 구별 없이 부르심에 속할 수 있겠다. 즉 성서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된 부르심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일이었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하느님에 대해 복종해야만 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자신은 왜 창조되었고, 하느님은 무엇을 위하여 자신을 부르고 계시는가, 그러한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의 문제가 곧 신앙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이룩한 성과나 업적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써 주어지기 때문이다.

한국가톨릭대사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성소를 위한 기도

하느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풍성하고 거룩한 사제성소를 불러일으키시어 말씀 선포와 성사 집전을 통하여 주님을 충실히 따르는 이들이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자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기억을 간직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에게 주님 제단의 거룩한 봉사자들을 주시어 진지한 열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상 구원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지고의 은총인 성체성사를 지키게 하소서

주님 자비의 봉사자를 부르시어 고해성사를 통하여 저희가 주님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 아드님의 성령께서 불어넣어주시는 풍부한 생명을 교회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아드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제 직무와 봉헌 생활의 성소를 보살필 수 있게 하소서.

주교, 사제, 부제, 봉헌 생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봉사하며 자기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의 모후이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고마운 일만 기억하기

이상하게도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히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뭔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합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기억하고,

타인에 대한 원망은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고마운 일만 기억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뤼귀롱의 《한걸음 밖에서 바라보기》중에서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본당신부 단상(斷想)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 이랍니다. 시대가 발달하다보니 과학, 예술, 종교를 자신이 알고 있고, 배워 온대로 한 가지 기준으로만 설명하려합니다. 과학은 편리함을 주고, 예술은 편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되는 신비, 오직 신앙의 눈으로만 보이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2009년 4월 29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765.00
교 무 금 : \$
감 사 금 : \$ 500.00
성전건립 : \$ 640.00
소 성 당 : \$ 150.00
합 계 : \$2055.00